

悲心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佛教는 全體가 大悲大悲로써 體를 삼았으니 一切大悲心이 없지佛 教를 傳布할 수 있으리라 佛大智心이라 함은 大智慧 大智慧 大智 大智로써 一切佛法을 求하야 一切衆生으로 하야 佛 界를 周觀하고 三世衆生의 無量한 因緣을 明察하 야 智眼이 虛空과 같고 辯才가 바다와 같고 智增菩 薩文殊大士와 같은 智力을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順衆生願 普皆回向願 이러한 열 가지 願이다. 우리 는 이런 것을 空文으로 보지 말고 多 못한 가지라도 實 行하기를 바란다.

三、回向心을 가지라

以上에 論述한 三心과 四弘誓願과 普賢의 十重大 願은 보다 大信心 大信仰으로 보려 流出하는 것이라 第一은 저 信仰만 갖게 되거든 三心도 그 가운데 있고 四弘誓願과 十重大願도 그 가운데 있다. 그러나 四弘誓願과 回向心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回向心이란 무엇인가 回向이라 함은 初發信心으로 보려 三心을 행한功德과 四弘誓願을 행한功德과 十重大願을 행한功德을 나의 게짜야 두지 말고 盡法界 虛空界 一切衆生의게 도리켜 하야 一切衆生으로 하야 恒常安樂을 얻어 버려 모든 痛苦가 없스 며 모든 衆生이 惡法을 행코저거든 다 이 루지 못하게 하고 善行은 다 速히 成就케 하야 一切의 모든 惡趣門을 關閉하고 人天涅槃의 正路를 開示하며 만일 모든 衆生이 그 積集한 惡業을 因하 는 故로 一切의 極重 苦를 免게 되거든 내가 代受 하겠다는 菩薩의 究竟心이다. 靡不有初나 鮮克有終 功徳願 轉法輪願 請佛住世願 常隨佛學願 恒

以上에 論述한 三心과 四弘誓願과 普賢의 十重大 願은 보다 大信心 大信仰으로 보려 流出하는 것이라 第一은 저 信仰만 갖게 되거든 三心도 그 가운데 있고 四弘誓願과 十重大願도 그 가운데 있다. 그러나 四弘誓願과 回向心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回向心이란 무엇인가 回向이라 함은 初發信心으로 보려 三心을 행한功德과 四弘誓願을 행한功德과 十重大願을 행한功德을 나의 게짜야 두지 말고 盡法界 虛空界 一切衆生의게 도리켜 하야 一切衆生으로 하야 恒常安樂을 얻어 버려 모든 痛苦가 없스 며 모든 衆生이 惡法을 행코저거든 다 이 루지 못하게 하고 善行은 다 速히 成就케 하야 一切의 모든 惡趣門을 關閉하고 人天涅槃의 正路를 開示하며 만일 모든 衆生이 그 積集한 惡業을 因하 는 故로 一切의 極重 苦를 免게 되거든 내가 代受 하겠다는 菩薩의 究竟心이다. 靡不有初나 鮮克有終

이라는 말과 가치 一切의 佛敎을 受하여서 모처럼 信仰을 發하고도 結果가 없는 것은 이러한 回向心이 없 는 까닭이다. 佛敎에서 흔히 回向을 잘 하야 하다는 말은 이러한 뜻을 가르친 것이다. 回向에 무슨 세 가지 藏回向이 있으니 卽實際回向과 菩提回向과 衆生回向이다. 實際回向이라 함은 實際에 있어서 法을 이 룬다는 말이요 菩提回向이라 함은 菩提에 있어서 佛을 이 룬다는 말이요 衆生回向이라 함은 衆生에 있어서

佛을 이 룬다는 말이니 實際、菩提、衆生三藏에 있어서 各其回向을 하잔 말이다. 우리는 아 못 조록 불꽃 가운 信火를 이 르켜서 모든 煩惱障을 燒除하야 버 리고 悲智願三心의 大海로써 모든 衆生을 含潤 拯濟하야 三處에 圓滿하게 回向하기를 바란다. 이 지이 覺醒의 宗教를 信奉하는 者의 使命이요 能仁大 覺世尊께서 苦口叮嚀하신 教訓이다.

洋樂과 朝鮮樂에 對한 所感

白 禹 鏞

大抵音樂은 本質의 三方面으로 樂曲 演奏 欣賞 等이 있고 形式의 三方面으로 表情 技巧 形式的 等이 있는 것이다. 이런 原則으로써 洋樂을 보다가 朝 鮮樂을 考察하면 明白할 것이 一 二가 안 될지라 수에 이것 을 多 談論할 수도 없고 또 不佞은 朝鮮樂譜를 洋樂譜 로 譯作하는 事業이 日淺하야 確實한 所感을 아직 完得지 못한다

大抵音樂은 本質의 三方面으로 樂曲 演奏 欣賞 等이 있고 形式의 三方面으로 表情 技巧 形式的 等이 있는 것이다. 이런 原則으로써 洋樂을 보다가 朝 鮮樂을 考察하면 明白할 것이 一 二가 안 될지라 수에 이것 을 多 談論할 수도 없고 또 不佞은 朝鮮樂譜를 洋樂譜 로 譯作하는 事業이 日淺하야 確實한 所感을 아직 完得지 못한다

西洋樂은 現今 純音樂 또는 絕對音樂으로서 吾人 의 進步한 心의 動作에 依하야 複雜한 想像力에 訴하야 有 形無形의 事機를 音響의 組合으로 描出할새 於是乎 標 題樂 Programme Music 이란 것이 發達되어 나가는 터 이다.

觀컨대 朝鮮樂은 發達이 未及한 古藝術을 習을 不免하야 主觀 客觀을 分別하기 難한 感情의 發作으로 出한 藝術 間短時期에 있어서 小小한 觀察로만 暫言코저 하는 바이

觀컨대 朝鮮樂은 發達이 未及한 古藝術을 習을 不免하야 主觀 客觀을 分別하기 難한 感情의 發作으로 出한 藝術 間短時期에 있어서 小小한 觀察로만 暫言코저 하는 바이

이라 故로朝鮮樂은全히文學의內容을버서나지못하고또그것을使用하기도禮式의一科即禮儀의附屬物처럼取扱하여온것이다。이점으로洋樂과朝鮮樂을比較하면天壤의異가自在하다할지르다。

그런데音階에있서서는 宮·商·角·變徵·徵·羽·變宮 七音을用하니 이는洋樂의do re mi fa sol la si와同하고 十二律이라한것은音自身의高低名稱으로서cdefgab와그의變等과同性質노된것이요 音의振動數에있서도 古代에는何如하던지現今에는西洋及大同하여朝鮮樂譜를洋樂譜로譯作하기容易하다思惟하노라。그七音의旋法을말할진대現今洋樂旋法과小異하다。古代피다고로스 스케일의六十律과同하여西洋古調와同様이다。그점으로그作曲法은西洋의旋律構造式과近似하다。七音十二律도亦是數理上公式으로하여協和音을求하되것인바情의이아니오理智의으로된지라 오직異感을生하기는現代西洋과차지그組織이複雜하고規模가雄大하지못하여 리르투스(Rythm)의變動이極히單純하고小數의音으로曲調를反覆하니 이는古代의作曲旋律이라한다 그러나此亦洋樂의古曲과無異하니 洋樂의古曲即宗敎樂曲은 리르투스가極히單純한것이多하다。

樂器는種類가多하여現在雅樂部에殘存한것으로말하여도五十數種이된다。其中純朝鮮樂器라할것은橫笛 玄琴 伽椰琴 鄕琵琶等小數이요 支那의적이多하며其中에 삼백산의大王의遠征으로因하여洋樂器가中央亞細亞等地에媒介되어支那에入한것도있다 故로洋琴으로보아도 西洋 왓시리아國의 델시머(Dulcimu)등이分明하니 波斯의델시머는洋琴과彷彿한것이라 現在西洋各國에도 델시머가잇스니 現在피아노는即델시머의發達된것인듯하다。樂譜로말하면舊譜와現在實奏하는樂과는 다르다 그러나余는史的考察엔未及하여말할것이아니오 오직形式上觀賞으로만말하면現今實奏하는樂曲도價値가 업다할수업다。

現存樂曲은文學上內容은貧弱하여지고오직音響의旋律律인때 심포니式으로되야西洋의交響樂과比肩할수잇는性質을備하여야있다。그和聲의組立法은現代佛蘭西印象的 進하여未來派의作曲者의것과 一致되는感이있다。普通人士가朝鮮樂을聽할時는厭症이 날것도잇스나 그러나音樂의專門家가드르면極히高尚하고古雅하여 마치大海底에잠긴老龍이胸中에無恨한情思를舒하는듯한聲도잇고 엇편것은仙女가紫雲

을하고 그것의樂器를弄하는듯한玄妙不可思議한深奧한趣味를起한다。此二派의感을노코보면 一은情的이요他一은知的이라 此二派外에立하여一次嚴正히批判하면一種新意見を陳述할수잇는것이다。

大略말하면右에言함과如히 심포니式의味가있다 할지오 그內容을歷史의으로말하면退步의狀態인은勿論이요 退步된이만한價値도不無하다하노니此의詳細한說明은後H에讓하고이만그치노라。

同志에게

哲學博士 白性郁

十年을一期로하여 다시同志를 一席에모이게한다는것은 무엇보다快事일것이다。尤히過去를 돌아보아서 萬般의新氣分이 이로써源泉을상앗다면 그얼마나偉大할야? 그것이만흔曲節을지내서 보다 더完全한基礎下에서 同志의鍛鍊場을構成하여 그中에서 여러분과 同居하게되는 過分한知遇를얻게된 나이엇다면 그얼마나 快事일야?

당신들의學術研究가 輿境으로 方向을가지고져할때마다 나의不敢을 늦기였음이 한두번이아니하였으며 당신들이 新思潮를 理解하고져할때마다 材料를供給하고져 하였는것은 나로서 甘心한과이다。그러나 時間에餘裕는 一身兩役에잇는나로서 당신들의要求에 符合지못하게되였을時에 나는참으로 앞았노라。 이와가치 決定한 心情에다가 休課中 당신들中으로서 慰安의通信을 바를때에 그얼마나 辛酸하였스나! 이點에잇서서 사랑하는 당신들이니 勿論나를理解하고 容恕할줄밧는다。 나는 잠간이나마 당신들을 떠나는形式에잇을때에 당신들의將來를爲하여 努力하고져하였다 그와같은心情이였슴으로 一言에理解가업시 한일에對하여 당신들은 諒解하고져하고 同情으로臨하였는態度를 나는 잘理解한다。 나는이點에잇서서 당신들의 人格的崇拜이 저절노생기고 同時